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알베르토 포나로 CFO 영입

2019. 12. 5.

2019. 12. 5. 서울— 쿠팡은 5일 알베르토 포나로(Alberto Fornaro) 신임 최고재무관리자(CFO, Chief Finance Officer)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포나로CFO는 한국과 미국, 유럽의 글로벌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서 활동해 온 재무 전문가로서25년 간 다양한 기업의 재무 관리를 총괄해 왔다.쿠팡에 합류하기 전에는IGT PLC(International Game Technology)의CFO 겸EVP로 근무하면서IGT를 세계적인 게임회사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 IGT 합류 전에는 두산인프라코어건설기계의 글로벌CFO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대표를 맡아 경쟁이 심한 건설기계산업 시장에서 회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이에 앞서 피트니스 장비 제조업체 테크노짐(Technogym)의 총괄매니저 겸CFO를 맡았으며, CNH 글로벌(CNH Global), 피아트 그룹(Fiat Group), 페루자 저축은행(Cassa Di Risparmio Di Perugia) 및 이탈리아 신용은행(Credito Italiano) 등에서 재무 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포나로CFO는 고객의 삶을 백 배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쿠팡의 미션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며”그의 풍부한 경험과 재무적 통찰은 쿠팡이 고객을 위해 셀렉션을 늘리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나로CFO는 “쿠팡처럼 혁신적인 회사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고객에게 독보적인 경험을 선사하면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쿠팡의 일원이 되어 매우 흥분된다. 쿠팡은 고객의 상품 선택 폭을 수백만 가지로 넓히는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단 몇 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회사다. 게다가 새벽배송, 로켓프레시처럼 고객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신규 서비스도 함께 런칭했다. 나도 이 놀라운 과정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포나로CFO는 이탈리아 시에나대에서 금융 및 재무분야의 석사, 학사 학위를 얻었고 하버드대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수료했다. 또한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과정의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